

버스터즈 배광석 나홀로 7타점... 야구파크와 29점 '화력쇼'

■ 광주일보 주최 제3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2라운드

디펜딩 챔프 청연한방병원, 에프나인 꺾고 2연패 순항

청연한방병원이 무등기 2연패를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라운드 8일 본량구장에서 펼쳐졌다. 인왕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청연한방병원은 에프나인을 꺾고 준결승 티켓을 획득했다. 호남리그의 화순에 슬레틱스도 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며 2연패를 위한 첫걸음을 뒀다.

호남리그(前 전남리그) 8강전도 열렸다. 지난해 호남리그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화순 에슬레틱스가 천재영의 홈런 등을 앞세워 일찌감치 9점을 뽑아내며 안타쳐블을 상대로 9-1,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주차 경기 결과

◆인왕리그 8강전(장소:본량구장)

에프나인 1000115-8
로즈나인 031122X-9
△승리투수:김형석
△투수:진용우(5회 1점)·김민음(7회 3점) 이상 에프나인, 김형석(2회 1점·청연한방병원)

대한철강 2174-14
슈퍼스타즈 0110-2 (4회 콜드)
△승리투수:김기정
△투수:정광석(3회 1점)·최정재(3회 2점·대한철강)

버스터즈 10495-19
야구파크 44020-10
△승리투수:박준규
△투수:배광석(1회 3점, 3회 3점, 5회 1점) 김영권(3회 3점 이상 버스터즈)·강민현(1회 3점)·임승연(1회 1점 이상 야구파크)

◆호남리그 8강전(장소:본량구장)

인타처블 00100-1
화순 에슬레틱스 0171X-9
△승리투수:나경호
△투수:김종성(3회 1점·인타처블) 천재영(3회 3점·화순 에슬레틱스)



8일 광주시 광산구 본량구장에서 열린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인왕 토너먼트 에프나인과 청연한방병원 경기. 3회말 좌전안타로 진루한 청연한방병원의 이봉운이 2루도로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창용

“이제 시작”

프로경력 19년만에 빅리그 성공적 데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경력 19년만에 꿈에 그리던 미국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첫 등판한 광주출신 임창용(37·시카고 컵스)은 경기후 첫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임창용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4로 뒤지고 있던 7회초 1아웃 상황에서 등판했다. 그는 컵스의 오랜 라이벌인 밀워키 브루어스 3타자를 상대로 0.2이닝동안 1안타와 1볼넷을 허용했으나 마지막 타자를 병살 처리하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 다음은 임창용과의 일문일답

-모든 야구선수가 꿈꾸는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 발을 디디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팀 상황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1점 차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긴장했던 것 같다.

-처음 첫 등판 소감은

▲등판할 때는 1점 차이였기 때문에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막아서 다행이다. 그러나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게 좀 아쉬웠다. /연합뉴스

-초구 던지고 나서 심판이 올라왔다. 뭐라고 말하던가.

▲침 바른 것 때문에(웃음). 공이 미끄러워서 침을 좀 발랐다. 마이너 리그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그 뒤로 언젠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됐는데, 그걸 마운드 아래서 하라고 지적했다.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함께 뛰던 아오키 노리치카 선수를 상대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한번 상대했었는데 아무튼 재밌었고... 유리했으면 좀 좋았을텐데 불리하게 가다보니 힘들었던 것 같다. 아오키 선수는 토타저답게 잘 쳤다.

-첫 등판해서 세 타자 상대하며 구종·구질을 시험했다. 자신감이 더 생기던가 그 반대였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첫 경기를 치렀고 다음 경기 나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수술 후 몸은 다 회복됐다.

▲수술 후 재활을 시작한 것이 14개월 정도 했다. 아직 100% 회복된 것 같지는 않고 80~90% 정도라고 느끼고 있다.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연합뉴스

‘날쌘돌이’ 이용규 질주 ‘STOP’

어깨 통증 다음주 수술대 올라 재할 6~8개월...시즌후 FA선언

‘날쌘돌이’ 이용규의 질주가 잠시 멈춘다.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가 8일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섰다. 다음 주 어깨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한화와의 홈경기가 이용규의 시즌 고별전이 될 것이다.

이용규는 “병원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 다음 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WBC)대표팀에서도 통증이 있었고 시즌 초부터 어깨가 좋지 않았다. 5월 정도에 의지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 되기도 했었다. 팀 사정도 그렇고 빠질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뛰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과 FA가 이용규에게는 자부심이었지만 결과로 보면 아쉬움이 됐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해택을 얻은 이용규는 “기회와 능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메이저리그에서 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지난 겨울 WBC 대표팀 부름을 받았을 때도 100%의 몸상태가 아니었지만 대충 할 수 없었던 이용규다. FA(자유 계약)와 우승이라는 부분도 욕심도

났다. FA는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자 큰 목표. 이용규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신청이 된다. 시즌 도중에 짐을 싸게 됐지만 자격은 이미 얻어둔 상태이다. FA라는 목표도 있었고 선수단에서 ‘우승 적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반 전력과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올 시즌 위업처럼 갈 수가 없었다.

수술 후 재활기간 까지 생각하면 6~8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 고민이 있었지만 이용규는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행사할 생각이다.

이용규는 “어차피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FA 계약을 하고 싶었다. 올 시즌 FA로 나오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내년에 신청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내년 시즌 각 팀들이 (FA를 통해) 전력 보강을 끝내놓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음 FA까지 고려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복사뼈 골절로 한 차례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더 어렵고 힘든 재활



이 예고된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 있다. 이용규는 “재활이라는 것이 스케줄이 나와있

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의지와 노력이 더 크다. 발 골절로 재활을 할 때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정보다 두 달 가량 일찍 복귀 했었다”며 “병원에서는 5~6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4월을 목표로 할 생각이다. 자신 있다. 문제는 수비가 될 것인데 통증만 없다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용규에게는 독하게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배우 유하나 씨와 결혼을 한 이용규는 지난 6일 건강을 염두에 두면서 아내가 됐다.

강한 어조로 수술과 그 이후 계획에 대해 얘기하던 이용규는 아이 얘기가 나오자 전혀 다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를 닮았다”고 활짝 웃은 이용규는 “정말 기분이 좋다. 유니폼을 입어서 야구장에 다닐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 책임감도 느껴진다. 아이에게 좋은 아빠, 자랑스런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개만 더 홈친다면... ‘20홈런-20도루-20사구’

ML역대 다섯번째 선수 다저스전 역전승 이끌어 류현진 12일 등판 할 듯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는 추신수(31)가 류현진의 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신시내티는 다저스에 연장 10회말 4-3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3경기에서 연속 안타를 때리며 물오른 타격감을 뽐내는 추신수는 이날 시즌 49번째로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타율은 0.288에서 0.289로 조금 올랐다.

앞서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회 솔로포를 터뜨렸다.

19호 홈런을 터뜨린 지 3일 만에 홈런포를 다

시 가동한 추신수는 이로써 9월 들어 치른 5경기에서 홈런을 3개나 기록하는 등 불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추신수가 시즌 홈런 20개를 달성한 것은 2010시즌 이후 3년 만이다. 또 빅리그에 올라온 2005년 이후 한 시즌에 홈런 20개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올 시즌 도루 17개를 기록한 추신수는 도루 3개만 더 보태면 개인 통산 세 번째 ‘20(홈런)-20(도루)’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추신수는 현재 몸에 맞는 볼 23개를 기록하고



있어 ‘20-20 클럽’에 가입하는 순간 20홈런-20도루-20사구를 남기는 역대 다섯 번째 선수가 된다.

한편 LA다저스 류현진(26)이 12일(한국시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